

## 錦山人蔘의 基源에 관한 考察

金 順 基

삼 남 화 학 연 구 소

On the Origin of Geumsan Ginseng

Soon Ki Kim

Sam Nam Chemical Laboratories, Geumsan, Korea

錦山人蔘은 栽培方法 및 製品狀態등에 특징이 있다. 이 금산인삼의 기원에 관해서 별다른 문헌을 찾아 볼 수 없으나 다만 錦山蔘業組合 포장인삼의 설명문 중에 200여년전 姜處士가 進樂山에서 山蔘의 종자를 채취하여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 그 發祥이라는 전설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전설조차 어떻게 전해 내려온 것인지 알 道理도 없고 이 점에 관심을 가진 人士도 별로 찾아 볼 수 없다.

### 栽培의 歷史

금산인삼은 물론 자연생인삼이 아니라 재배된 인삼일 것이라 추측되기에 人蔘栽培의 역사를 考證한다 함은 錦山人蔘의 기원을 더듬는데 큰 뜻을 찾게 될 것이다.

人蔘史(조선총독부)에 의하면 200여년전까지만 해도 深山에서 채취해낸 自然生人蔘만이 있었는데 「일본이 18세기초에 최초로 재배에 성공하고 그후 일본보다 50년쯤 뒤 떨어져 한국에서 성공을 하였으며 중국은 그보다도 100년쯤 뒤늦게 19세기 후기에나 성공되었다」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인삼의 재배를 최초로 성공한 나라가 일본임을 강조한 것임에 틀림없다.

인삼의 재배는 林間, 林間日覆, 陽地日覆栽培의 순서로 발달된 것으로 생각된다. 林間栽培는 자연생인삼이 陽地에서는 절대로 생육하지 못하고 日蔭下에서만 생육된다는 그 특성을 알게되면 누구나 생각해 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排水가 잘 되고 물끼가 적절할 음지에서는 비교적 순

조롭게 성장된다.

저자는 1964년 3월 庭園內樹木 그늘에 植付해 둔 2년 苗蔘이 일절의 人工을 가해 준 사실이 없는데도 10년생인 년명에도 건전하게 줄기를 뚫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고 있는 사실은 관찰해 오고 있다.

인삼은 이렇게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지만 번식이 어려웠던 이유는 종자의 發芽가 人工을 가해주지 아니하면 지극히 곤란하다는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發芽促進의 방법만 알고 있으면 인삼은 쉽게 林間에서 재배할 수 있는 식물이라고 본다.

그 수요가 많고 가격이 고가인데 불구하고 인삼채취를 자연생인삼에만 오래동안 의존해 나오다가 약 200년제에서야 비로서 재배를 하게 되었다는 일본학자의 설은 믿을 수 없는 것에 불과하다.

林間栽培를 인삼의 재배로 看做한다면 인삼재배의 역사는 훨씬 오래전으로 소급되어야 옳을 것이다.

### 高句麗人蔘과 百濟人蔘

중국의 齊나라의 陶弘景(AD 456~536)은 本草集註, 名醫別錄 등의名著를 남기고 있는데 名醫別錄 중에 「人蔘乃重 百濟者 形細而堅白, 高句麗蔘 形大虛弱 未及百濟者」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高句麗蔘과 百濟蔘 兩者의 특징, 품질의 비교까지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음을 볼 때 그 재배의 역사는 적어도 1500년은 넘었을 것이라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만주 및 중국산 약용인삼을 식물분류학적으로 고찰할 때 단일종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산지, 재배조건에 따라 마치 몇가지 品種 또

는 變種으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여러가지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일정한 조건하에 재배된 인삼은 산지는 달라도 그 형태와 특징에 어느 공통된 점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생인삼은 그 생육조건이 一定할 수 없을 것이니 형태 및 특성도 일정할 수 없을 것이라 함이 타당할 것이다.

어느 공통된 특징을 지닌 商品化된 인삼은 자연생인삼이 아니라 재배인삼일 것이며 따라서 名醫別錄에 기록된 인삼은 그 공통된 특징이 각각 明示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자연생인삼이 아니고 재배된 인삼이라고 할 수 있다.

### 百濟人蔘과 錦山人蔘과의 關係

陶弘景이 1500여년전 관찰한 高句麗人蔘의 특징이 形大虛弱이고 百濟人蔘이 形細堅白이라던 오늘의 고려인삼과 금산인삼의 특징과 놀라우리만큼 相通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百濟나라는 陶弘景의 출생보다 100년 앞선 AD 346년 건국되었으니 百濟人蔘이 중국에 건너가서 陶弘景이 그를 입수하여 관찰할 수 있었던 적절할 시기이기도 하다는 점과 인삼질설의 發祥地인 進藥山은 百濟의 首都인 扶餘에서 불과 50km의 거리에 있는 가장 가까운 심산지대이라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의 百濟人蔘의 주산지인 錦山이 있었으리라는 것은 능히 추측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점만으로서 錦山人蔘이 百濟人蔘에서 유래된 것이다 속단키에는 부족한점이 있을 것이라 보나 陶弘景이 관찰한 百濟人等의 특징과 오늘날의 錦山人蔘과 상통되는 점이 있다는 것, 百濟國의 수도와 錦山은 지리적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등을 검토해 본다면 百濟人蔘과 錦山人蔘과의 관계를 立證할 길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며 앞으로 계속 추구하고자 한다.

<1972. 2. 10 접수>